

脫마르크스主義의 共產圈 經濟學

吳 勇 錫*

〈目 次〉

- I. 序 論
- II. 마르크스經濟理論과 共產圈 經濟
- III.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計劃과 市場原理
- IV.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所得과 分配概念
- V.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成長戰略
- VI. 共產圈의 貨幣金融 및 貿易의 脫마르크스의 轉換
- VII. 結 論
- 參考文獻

I. 序 論

마르크스主義(Marxism)를 社會制度의 公式 理念으로 내세운 레닌(Vladimir Lenin)이 1917년 11월에 볼셰비키(Bolsheviki) 革命에 의해서 러시아에 세계 최초의 共產政權을 세우고, 第2次 世界大戰 이후에는 東유럽 國家들과 中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蘇聯에 의해서 共產化되면서 經濟적으로 自由圈의 資本主義 市場經濟에 대항하는 共產圈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가 형성되었다. 共產圈의 社會主義 經濟體制下에서 經濟問題에 관한 理念的 體系를 이루는 것은 社會主義 政治經濟學(political economics of socialism)이며, 그 기초는 마르크스의 經濟理念이다. 일반적으로 社會主義 政治經濟學을 마르크스經濟學(Marxian economics) 또는 마르크스主義經濟學(Marxist economics)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共產圈에 社會主義 經濟體系가 형성된 이후 마르크스의 經濟的 論理는 現實的인 實驗臺에 오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많은 矛盾과 問題點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

*慶星大學校 商經大學 教授.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자유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 문제점은 共產圈 經濟로 하여금 體制的 改革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共產圈에서 脫마르크스의 經濟理論의 開發과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的 要素를 광범위하게 導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研究는 共產圈의 經濟運用 論理와 經濟改革 및 開放을 통한 변화 속에 內在하거나 表出되는 脫마르크스의 要素를 探究함으로써 共產圈에서의 經濟的 論理의 實質的 變化를 밝히고, 그에 대한 結論으로서 共產圈 經濟의 將來를 展望함과 아울러 韓國과 共產圈 國家들 간의 經濟的 接近의 必然性을 提示하려는 데 目的을 두었다.

이 論文에서 考察되는 共產圈의 範圍는 蘇聯, 東유럽 및 中國에 局限하였다. 蘇聯은 共產圈 經濟의 元祖로서, 東유럽 國家들은 소비에트의 大國型 經濟運用 模型을 移植한 뒤에 그것을 자기의 與件에 맞추어 小國 模型으로 變形시켜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中國은 蘇聯에 맞먹는 共產圈의 大國이면서 果敢한 脫마르크스의 變化를 追求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기 共產圈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國家들의 1983년 현재 共產圈에서의 外的 比重만을 보더라도, 領土 91.7%, 人口 93.4%, 그리고 GNP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¹⁾. 그러므로 蘇聯, 東유럽 및 中國은 실질적으로 共產圈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특히 經濟運用原理의 면에서 볼 때, 共產圈의 다른 群小國家들의 經濟는 다른 領域과 마찬가지로 共產圈 主要國 특히 蘇聯과 中國의 절대적인 影響圈 안에 있으므로, 이들 주요 국가들에 적용되는 經濟原理과 政策의 變化는 곧 共產圈 전체에 적용되는 經濟原理의 變化로 認識하여도 無理는 없다.

이 研究의 內容과 範圍는 한 편의 論文만으로서 完結시키기에 매우 벅차다는 것은 否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주어진 主題를 要點의 考察하는 데 그쳤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음을 밝혀 둔다²⁾.

II. 마르크스經濟理論과 共產圈 經濟

1. 마르크스經濟理論의 基本概念

마르크스經濟學의 對象은 당시 資本主義社會였기 때문에 共產圈 經濟에 관한 논의는 별로 많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共產圈 經濟에 깊은 聯關을 가진 부분만을 要約한다.

마르크스 논리의 核心은 唯物史觀이며, 그것은 인류사회의 生存과 發展의 歷史를 經濟的으로 解釋한 것이다. 즉, 모든 社會形態는 經濟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그 構造는

1) U.N., *Demographic Yearbook*, 1983 ; *The World Book Encyclopedia*, 1986.

2) 拙著,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經濟學」(서울 : 슬라브研究社, 1988)

人類社會 發展史에서 物質生産資料와 生産力의 變化 및 社會生産關係의 變化에 따라서 社會生産關係의 總和로서의 특징을 갖는 古代社會, 封建社會, 부르즈와社會 등과 같이 일정한 段階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³⁾.

마르크스는 社會의 物質生産力이 發展하여 일정한 段階에 이르게 되면 既存의 生産關係와 矛盾이 생기고, 그 때문에 社會革命이 誘發된다고 하였다⁴⁾. 그는 이러한 논리로써 資本主義社會의 消滅과 社會主義社會의 生成을 설명하였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 崩壞 原因을 資本蓄積에 의한 剩餘勞動이라고 보았다. 商品生産過程에서 추가되는 價値는 剩餘價値이며, 그 價値創出의 源泉은 勞動이다. 그런데 生産에 投入된 勞動에 대한 報酬는 처음 勞動市場에서 支拂된 것 뿐이고 剩餘價値를 創出した 勞動의 報酬는 주어지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 가운데서 報酬가 주어지는 노동을 必要勞動, 報酬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을 剩餘勞動이라고 하였다⁵⁾. 결국 資本家は 剩餘勞動에 의하여 창출된 剩餘價値를 搾取하는 것이다.

資本主義下에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資本은 끊임없이 蓄積되고 資本의 效率性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資本家の 利潤은 減少하며, 資本家は 그것을 補填하기 위하여 勞動需要를 줄인다. 勞動者들은 生計費 이하의 賃金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내 機械의 附屬物로 轉落되고 만다.

勞動者들은 자기들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의 다른 疏外階層과 연합하고 단결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으로 組織化된다. 이와 같이 조직화된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새로운 生産力으로서 資本主義社會를 崩壞시키고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를 形成한다⁶⁾. 社會主義的 生産關係 위에서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에 의한 中央集權化가 이루어지고, 모든 生産手段의 國有化와 勞動의 社會化가 이루어진다⁷⁾.

蘇聯, 동유럽, 中國을 비롯한 共產圈 國家들이 그들의 政權樹立이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共產黨宣言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은 社會主義 經濟體制로 移行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經濟論理가 주로 資本主義를 설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共產圈 國家들은 그 논리를 그들 經濟에 그대로 適用했던 事例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勞動價値說이다. 共產圈 經濟에서는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에 따라서 勞動 이외의 生産要素에 의한 價値創出能力을 否定하였다. 또 마르크스는 勞動을 同質

3) 馬克思, 「雇傭勞動與資本」, 『馬克思恩格斯文選』, 第一卷(北京:人民出版社, 1958), p.67.

4) 馬克思, 「政治經濟學批判序言」, 上掲書, p.341.

5) Karl Marx, *Capital*, vol.1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pp.216-217.

6) Karl Marx & Friedrich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Arther P. Mandel ed, *Essential Works of Marxism* (New York: Bantam Books, 1965), Section I.

7) *Ibid.*, Section II.

의인 것으로 보고 商品의 價値生産에서 勞動力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마르크스의 생각은 共產圈 經濟에서 能力別 賃金制度를 否定하는 勞動 平等主義 思想의 근거가 되었다. 그 밖에 資本蓄積過程으로서 마르크스가 내세운 擴大再生産理論은 共產圈 經濟成長理論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2. 마르크스經濟理論과 共產圈 經濟體制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 國家들은 하나 같이 마르크스의 歷史發展 法則에 의해서 출현한 社會主義社會라고 하지만, 마르크스는 결코 러시아, 동유럽, 또는 中國과 같은 農業爲主의 後進의 社會가 社會主義社會의 前段階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初期 共產圈 指導者들은 자기네 나라의 사정을 마르크스主義에 맞추어 설명하는 데 커다란 困辱을 치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共產革命은 “資本主義 고리의 가장 약한 連結點을 擊破한 것”이라는 레닌의 주장이 이 문제에 대한 公式論理가 되었으나⁹⁾, 그것은 하나의 억지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共產主義 革命은 마르크스의 社會發展段階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레닌을 비롯한 스탈린, 毛澤東과 같은 社會變革을 원했던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가 안고 있던 脆弱性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었던 政治的 智略과 戰略의 성공이었다.

蘇聯은 政權初期에 生産手段의 社會化 過程에서 農民들의 완강한 반대로 農業生産이 감퇴되자 都市 勞動者들도 農民과 연합하여 反政府 暴動까지 일으켰다. 프롤레타리아政權임을 自處하던 共產政權이 오히려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前衛인 勞動者들의 抵抗에 부딪친 것이었다. 마침내 레닌은 1921~28년에 資本主義的 市場經濟體制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 “新經濟政策”(NEP)을 실시함으로써 社會化를 撤回하였다. 이처럼 마르크시즘의 實現은 처음부터 그 矛盾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蘇聯 이외의 共產圈 經濟에서도 勞動價値說을 비롯한 마르크스의 經濟理論에 따른 經濟運用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거기에 대한 自覺으로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과 中國은 傳統的 소비에트型 經濟體制와 다른 형태의 소위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經濟로 移行하는 經濟改革을 통하여 새로운 理論體系를 構築하여 나가고 있다. 최근 蘇聯도 經濟改革과 더불어 레닌의 NEP體制가 거론되고 있다¹⁰⁾.

8) Marx, *op.cit.*, p.39.

9) 列寧, 「共產國際綱領」, 「共產黨原始資料選輯」(臺北, 1969), p.13.

10) Evgenii Ambartsumov, “Analiz V.I.Leninym prichin krizisa 1921g. i putei vykhoda iz nogo.” *Voprosy istorii*, no.4, April 1984 p.15.

이제 共產圈에서 마르크스의 論理는 하나의 遺物的 思考로 轉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I.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計劃과 市場原理

1. 最適計劃法上的 脫마르크스의 要素

共產圈에서 財貨의 稀少性을 전제로 한 資源配分 문제를 다룬 것이 最適計劃法이다. 財貨의 稀少性 문제는 마르크스의 논리에 의하여 오랫동안 禁忌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 資源配分의 最適性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最適計劃法の 開發은 특히 蘇聯의 學者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다양한 技法이 導入되었다. 그 가운데서 노보질로프(V.V.Novozhilov)와 칸토로비치(L.V.Kantorovich)의 모델은 대표적인 것이다.

노보질로프의 모델은 생산에 투입되는 勞動費用의 最小化를 目的函數로 하고, 계획 기간 마지막 時點의 固定產出額을 制約條件으로 하고 있다¹¹⁾.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資源의 稀少性과 代替性 및 機會費用의 인정이다. 노보질로프는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에 對立되는 機會費用 대신 “피드백 支出”(feedback outlay)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그 내용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즉, 그는 이 支出을 “勞動 이외의 다른 稀少性을 가진 資源이 어느 한 部門에서 勞動에 代替되어 勞動 投入을 最小化하지만, 그 稀少資源이 사용되지 못한 部門의 勞動費用이 커짐으로써 발생하는 費用”이라고 定義하고 있다¹²⁾. 이 모델에서 일단 이 費用의 크기가 주어지면 보다 적합한 財貨의 價格이 결정되고 그것이 制約條件으로 連繫되어 모든 產出物에 대한 勞動費用의 最小化가 이루어지므로 資源配分은 最適狀態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노보질로프는 분명히 脫마르크스의 論理를 전개하였음에도 外形의으로 마르크스理論과 合致시키기 위하여 모든 生産費用의 產出單位를 勞動으로 나타냄으로써 단순히 표시될 수 있는 資本費用 또는 그 機會費用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 만일에 그가 勞動價値說에 얽매이지 않고, 勞動供給이 固定된 상태에서 勞動에 의한 資本代替로 非勞動要素의 最小化 모델을 만들었다라면, 그것은 훨씬 더 共產圈 經濟의 現實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11) V.V. Novozhilov, "Cost-Benefit Comparisons in a Socialist Economy," A.Nove ed. *The Use of Mathematics in Economics* (London: Oliver & Boyd, 1964), pp.45-49.

12) *Ibid.*, pp.116-123, 131-132.

共產圈 經濟計劃에서 주어진 目的函數는 일반적으로 總生産物價値의 最大化이며, 그것에 대한 制約條件은 資源과 技術이다. 칸토로비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線型計劃模型으로 나타내었다.

각 財貨의 生産에 適用되는 r 종의 技術에 대한 技術벡터는

$$a^S = (a_{11}^S, \dots, a_{1n}^S, a_{21}^S, \dots, a_{2n}^S, \dots, a_{r1}^S, \dots, a_{rn}^S), S=1, 2, \dots, r$$

이다. 여기서 처음 n 개의 구성단위는 最終生産財이고, 그 다음의 $(N-n)$ 개의 구성단위는 資源이다. 그리고 生産物 한 단위에 대한 技術集約度를 x_S 라고 할 때, 計劃벡터는

$$\pi = (x_1, x_2, \dots, x_r)$$

이며, 計劃 π 에 의한 i 번째 財貨의 生産量은

$$y_i = a_{i1}^1 x_1 + a_{i1}^2 x_2 + \dots + a_{i1}^r x_r, i = 1, 2, \dots, n$$

이다. 이제 生産物에 대한 價値의 比率를 k_1, k_2, \dots, k_n 이라고 하면, k_i 에 대한 y_i 의 비율이 最小가 될 때 이용 가능한 계획 π 는 最適이다. 즉,

$$\Omega(\pi^*) = \min(y_i / k_i), i=1, 2, \dots, n$$

이것이 最適計劃이 되기 위한 必要充分條件은 線型計劃法에 의한 雙對問題에서 구해지는 潛在價格의 존재이다¹³⁾.

칸토로비치의 最適計劃模型은 巨視的 動態의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¹⁴⁾. 이 模型에서 消費의 最低水準을 보장해주는 財貨의 生産能力을 비교하는 基準으로 그는 “客觀的 條件附 評價”(objectively conditioned valuations)를 定義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雙對問題의 解로서 潛在價格이다.

일반적으로 最適化 문제에서 구해지는 產出物과 投入物에 대한 潛在價格은 한 단위 投入物の 損失로 인하여 잃게 되는 生産物の 量(限界實物生産物) 또는 다른 財貨 한 단위를 생산하지 않음으로써 더 생산할 수 있게 된 어떤 財貨의 量(限界機會費用)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潛在價格은 쿠프만스(T.Koopmans)가 論證했던 바와 같이, 需要와 技術이 같은 環境에 있는 完全競爭市場에서 결정된 價格과 똑같이 合理的일 수 있다¹⁵⁾

13) Kantorovich는 ‘潛在價格’(shadow prices) 대신 ‘決定乘數’(resolving multipliers)라는 용어를 썼다. L.V.Kantorovich, “Mathematical Methods of Production Planning and Organization,” A.Nove ed. *op. cit.*, pp.247ff.

14) 이러한 模型들은 L.V.Kantorovich : *Essays in Optimal Planning* (White Plains, N.Y. : International Arts & Sciences Press, 1976)에서 볼 수 있다.

15) T.C.Koopmans,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Econometrica*, vol.20, no.4(October 1951), pp.455ff.

. 확실히 潛在價格의 意義는 生産에 投入되는 資本이나 土地도 모두 稀少性을 가지며, 그에 따라 이들 非勞動 生産要素는 모두 機會費用을 갖는다는 데 있다. 社會主義 經濟學에서 潛在價格을 인정한다는 것은 勞動만이 價値를 創出해낸다는 마르크스 논리에 대한 중대한 修正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2. 脫마르크스의 市場化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의 現象은 計劃模型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共產圈 國家에서 經濟改革을 통하여 脫마르크스의 計劃分權化와 市場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共產圈 國家들 중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단순한 分權的 計劃經濟가 아닌 특수한 형태의 市場經濟體制라고 할 수 있는 '市場社會主義' 體制에 의하여 經濟를 運用하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中國 및 베트남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市場機能을 확대시켜 나가고, 고르바초프 執權後의 蘇聯도 제한적이나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 社會主義 經濟學者들이 消費財市場, 金融市場 및 對外市場을 社會主義經濟에 존재하는 正常的의 市場機構로 받아들여야 한다¹⁶⁾고 했던 주장이 이제 서서히 實現되고 있다.

市場經濟는 資本主義를 특징지워주는 것으로서 마르크스, 엥겔스 및 레닌은 市場의 存在를 前提로 하는 商品生産은 社會主義社會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¹⁷⁾ 그러나 蘇聯의 社會主義革命 이후에 共產圈의 어느 經濟에서도 市場이 완전히 사라졌던 일은 없다. 理論의으로도 1930년대에 "市場社會主義" 理論을 전개한 랑게(Oskar Lange)를 비롯한 많은 共產圈의 經濟學者들이 펴온 計劃과 市場의 共存 論理는 이제 社會主義經濟學에서 빼놓을 수 없는 主題의 하나이다.

비록 共產圈 經濟에 計劃原理가 適用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마르크스主義의 存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社會主義 經濟論理에 財貨의 稀少性을 반영하는 潛在價格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도 計劃과 市場의 共存은 마르크스經濟理論에 의해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16) J.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0), p.42.

17) Zhou Shylian, "The Market Mechanism in a Planned Economy," Lin Wei & A.Chao eds., *China's Economic Reform*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p.101.

Ⅳ.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所得과 分配概念

1. 國民所得 計定

共產圈 經濟에서 所得에 關하여 物的, 非物的 生産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스미드(Adam Smith) 등 古典經濟學者들이 勞動을 生産的 勞動과 非生産的 勞動으로 구분하던 것을 마르크스가 계승하여 生産的 勞動만이 剩餘價値를 創出해 낸다고 한 주장과 社會構造를 物的인 下部構造와 非物的인 上部構造로 구분한 것에 根據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르크스의 二分法은 현실적으로 共產圈 經濟에 適用되는 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우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勞動者의 일 가운데 어떤 부분이 物的 生産과 직접 관련되고 어떤 부분이 직접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전체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所得에 그와 같은 구분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共產圈 各國은 마르크스의 二分法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産業 및 業種에 따라서 生産的 領域과 非生産的 領域으로 나누어 國民所得을 算出한다. 그리고 두 영역을 나누는 데도 共產圈 國家들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生産的 領域에 속하는 部門의 活動結果는 國民所得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못한 部門은 非生産的 領域으로서 國民所得에서 제외시키는 마르크스主義 國民所得計定法은 확실히 非合理的이다. 經濟開發이 進展되고 産業構造가 高度化된다는 것은 國民所得과 雇傭人口의 産業別 比重이 物的 生産部門인 第1次産業에서 第2次産業으로 옮겨감과 동시에 非物的 서비스部門인 第3次産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變化는 共產圈의 모든 經濟에서도 경험되는 일로서 雇傭構造에서 物的 生産部門의 比重이 蘇聯, 체코슬로바키아 및 東獨 등 共產圈의 先進國들에서보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中國 등과 같은 後進國에서 상대적으로 높다¹⁸⁾. 이것은 앞으로 共產圈 經濟에서 非生産的 領域이 生産的 領域으로 移行되지 않는 한, 共產圈에서 先進國의 國民所得이 後進國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矛盾 때문에 共產圈 國家들에서 國民所得의 算出方法을 보다 합리적으로 改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共產圈 國家들 중 특히 相互經濟援助會議(CMEA, COMECON) 會員國들이 중심이 되어 國家間에 國民所得 統計上 差異가 많은 生産的 用役에 관한 일치된 分類基準을

18) Wilczynski, *op. cit.*, p.61.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 가운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國民所得으로 計上되지 않는 非生産的 用役의 範圍를 가능한 한 縮小함으로써 그들의 國民所得 概念을 西方의 그것에 接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共產圈 經濟에서도 科學, 敎育, 職業訓練, 保健 衛生, 住宅 및 團體的 用役과 같은 非生産的 領域의 發展이 生産에 미치는 影響이 커져가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는 데서 이러한 노력은 共產圈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國民所得의 算出基準으로서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에서 출발한 共產圈 國家들의 價格體系의 非合理性은 共產圈 自體에서도 이미 認定된 것이다. 共產圈의 모든 經濟에서 資本과 土地의 이용에 대한 費用이 計上되고, 그 중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市場機能에 의하여 價格을 決定하고 있으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中國 등이 價格改革을 통하여 價格體系의 非合理性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共產圈에서 國民所得 統計의 正確性を 기하기 위한 脫마르크스主義的 變化는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2. 生産, 消費 및 投資

共產圈 經濟에서 國民所得과 관련된 生産構造는 전통적으로 마르크스의 再生産理論에 따라 生産財 生産部門을 '第Ⅰ部類'로 하고, 消費財 生産部門을 '第Ⅱ部類'로 하여 구분되어 왔다. 이와 같은 生産部門의 兩分論理는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理論에 근거한 經濟成長戰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落後된 經濟를 短期間內에 急速히 工業化시킬 수 있는 戰略은 가능한 한 第Ⅰ部類의 發展이 第Ⅱ部類보다 優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 전체를 第Ⅰ部類와 第Ⅱ部類로 나눈 것과 같은 論理에서 工業도 生産財를 주로 生産하는 工業을 '工業 A'라 하고, 消費財를 주로 生産하는 工業을 '工業 B'로 나눈다. 이 分類 基準은 生産品의 주요 用途가 生産目的이면 工業 A로 하고, 그것이 消費目的이면 工業 B로 정한다. 生産財와 消費財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製品을 동시에 生産하는 工業은 그 主要 生産品이 工業 A에 속하느냐 아니면 工業 B에 속하느냐에 따라 分類된다.

그러나 도마(Evsey Domar)와 와이즈만(Martin Weitzman)이 일찌기 논한 바와 같이, 모든 生産業을 명확하게 生産財 生産部門과 消費財 生産部門으로 나눈다는 것은 現實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¹⁹⁾. 蘇聯의 우시예비치(M. Usiyevich)를 비롯한 많은 共

19) E.D.Domar, "A Soviet Model of Growth." Domar,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227 ; M.Weitzman, "Shiftable Versus Non-Shiftable Capital : A Synthesis," *Econometrica*, vol.39 no.3(1971), p.512

産圈 經濟學者들도 마르크스의 生産業 兩分化 論理에 의한 經濟成長戰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²⁰⁾. 따라서 마르크스의 産業分類法은 共產圈 經濟에서조차 理論의으로만 논의될 뿐이고, 現實的인 分類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르크스 論理의 非現實性과 그에 따른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의 現象은 나타난다.

共產圈 經濟는 마르크스主義者들에 의하여 生産爲主 經濟가 되었고, 消費形態는 個人消費보다 集團的인 社會消費가 重視되었다. 이것은 物質이 人間意識을 決定하므로, 어떠한 樣態로든지 필요한 物質만 제공되면 意識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唯物論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消費는, 체코슬로바키아 經濟學者인 시크(Ota Sik)가 지적한 바와 같이, 人間の 強烈的인 主觀的 欲求와 결합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物質의 提供만으로 끝나지 않는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즘에 입각한 共產圈 經濟에서의 消費는 人間の 多樣的인 內面的 欲求가 무시된 채 生存에 필요한 物質의 消耗行爲로서 가능한 最小水準에서 이루어지도록 計劃되었다.

消費者의 選好가 무시된 이른바 “社會主義로부터 共產主義로 移行하기 위한” 社會消費의 擴大는 勞動所得으로 소비하는 “社會主義消費樣式”이나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共產主義 消費樣式”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不法的인 暗去來만을 助長하였다. 共產圈 經濟 안에서 이러한 마르크스의 論理에 逆流하는 상황의 전개는 脫마르크스의 改革者들에게 설 땅을 마련해 주었다.

共產圈 經濟에서의 脫마르크스의 現象은 投資部門에서 더욱 더 잘 나타난다. 長期投資의 效率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蘇聯을 비롯한 共產圈 國家들은 産業部門別로 ‘規範的 效率係數’를 割引率로 하는 割引係數를 쓴다. 즉, 投資部門 i 의 規範的 效率係數를 E_i 라고 하면, 期間 t 에 대한 割引係數는 $(1+E_i)^{-t}$ 이다. 또한 蘇聯은 投資事業 運營費 C 와 投資額 I 에 대하여 固定係數 0.12를 곱한 것의 합 $C+0.12I$ 를 最小投資費用으로 한다. 共產圈 經濟에서 公式의으로 利子 또는 利子率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으나 위의 E_i 는 資本使用에 대한 時間的 費用을 결정해준다는 의미에서 利子率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0.12I$ 는 投資額에 대한 費用이므로 그것은 곧 利子이다.

마르크스는 利子を 資本主義 榨取樣式이라 하여 否定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共產圈 經濟에서 投資의 效率性 問題의提起와 더불어 實質的인 利子概念이 導入되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共產圈 國家들에도 資本市場이 생기고, 企業들은 利子付 私債를 발행하며, 對外 資本去來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共產圈에서 이러한 經濟的 概念의 變化는 마르크스의 資本利子 否定論理와 완전히 背馳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0) *Voprosy ekonomiki* (January 1969), pp.11-122.

21) Ota Sik, *The Third Way* (London : Wildwood House, 1976), p.60.

3. 賃金, 地代 및 利潤

生産에서 價値를 創出하는 것은 勞動 뿐이므로 土地와 資本에 대한 代價支拂은 勞動의 搾取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 共產圈 國家들은 土地와 資本을 國有化하거나 社會化하여 오랫동안 아무런 댓가없이 사용하였다. 共產圈에서는 經營도 企業의 利潤追求와 상관없는 일종의 勞動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利潤概念도 당연히 형성되지 못하였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賃金 등 勞動에 대한 物的 인센티브는 본질적으로 資本主義 遺物이므로 社會主義社會에서 그것은 사라지고 勞動者들은 道德的 인센티브에 의하여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70년에 걸친 경험과 東유럽 및 中國의 共產政權 40년에 이르는 동안 勞動에 대한 物的 刺戟의 形態가 계속 강조되어 왔고, 이들 共產圈의 經濟改革은 그것을 더 한층 강조함으로써 勞動生産性を 向上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우기 마르크시즘에서 禁惡로 여기는 企業의 利潤에 勞動者들의 物的 인센티브基金을 連繫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共產圈에서 마르크시즘에 의한 經濟運用으로는 勞動者들의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所得分配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과거 共產圈 經濟에서는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라 利子和 마찬가지로 地代도 費用으로 計上되지 않았기 때문에 土地는 일종의 自由財와 같이 취급되었고, 그에 따라 土地濫用이 하나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蘇聯의 스트루밀린(S.Strumilin)과 폴란드의 출라이(H.Cholaj)는 土地濫用 문제는 計劃當局이 土地의 價値를 認定하고 그 가치를 산출해내는 합리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²²⁾.

그러나 이제 共產圈에서도 土地를 自由財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으며, 蘇聯을 제외한 東유럽 國家들에서 인정되는 私有地는 去來의 對象이 되는 분명한 經濟財이다. 共產圈의 모든 國家들은 土地稅, 去來稅, 農產物調達價格 등을 책정할 때 土地의 位置와 地域에 차이를 둬으로써 실질적으로 토지사용자들에게 差額地代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差額地代가 租稅와 農產物의 調達價格에 반영되어 國家豫算에 흡수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社會主義經濟에서 地代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뀐 채 그 概念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共產圈 國家의 거의 모든 土地가 國有化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實質的 地代는 個人이 아닌 國家에 歸屬되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22) Wilczynski, *op. cit.*, pp.118-119.

共產圈의 脫마르크스의 經濟概念의 變化를 논의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利潤이다. 마르크시즘에 의한 共產圈의 전통적 利潤概念은 資本家들이 勞動者들에 의하여 생산된 剩餘價値를 擄取하는 樣式이다. 그러나 이러한 利潤概念은 蘇聯에서 企業의 成果는 收益性에 의해서 評價되어야 하고, 利潤의 일부는 賞與金基金으로 社內에 留保되어야 한다는 리베르만(Yevsei Liberman)의 주장을 1965년에 코시긴 改革에서 收容되면서 바뀌어져 갔다²³⁾. 利潤이 企業活動의 中心目標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中國의 孫冶方을 비롯한 共產圈 學者들이 일찍부터 했던 주장이며²⁴⁾, 유고슬라비아는 蘇聯에 앞서 이미 1952년 改革을 통하여 利潤을 企業活動의 動機로 인정하였다.

이제 共產圈의 經濟改革이 보편화되면서 利潤이 資本主義 企業들만의 專有物이라는 認識은 이미 사라졌고, 共產圈 企業들이 利潤을 追求한다는 데 異論의 餘地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利潤重視 現象과 함께 企業의 投資效率性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利潤增加분이 쓰인다. 즉, 利潤增加분을 $\Delta\pi$, 投資額을 I 라고 하면, 企業의 投資效率性 $E = \Delta\pi / I$ 로 표시된다. 그런데 여기서 投資는 資本增加분 즉, $I = \Delta K$ 이므로 投資效率은 다른 말로 하면, 資本의 限界利潤率이다. 마르크스主義 觀點에서 볼 때, 社會主義經濟에 이와 같은 限界概念의 導入은 利潤概念의 導入보다 더욱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限界主義는 社會主義 특히 마르크스主義 經濟理論과 相剋關係에 있기 때문이다²⁵⁾. 共產圈 經濟에서 利子和 利潤이 인정되고, 그 위에 限界概念까지 導入되었다는 것은 社會主義 經濟學이 마르크시즘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離脫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V.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의 成長戰略

1. 共產圈 經濟成長戰略의 形成

共產圈의 社會主義經濟는 마르크스가 豫見했던 바와 같이 先進 資本主義經濟로부터 發展된 段階가 아니라, 대부분 농업 위주의 後進經濟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共產圈 國家들의 工業化와 經濟成長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課題가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共產圈 經濟의 모든 것은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을 위해 존재하여 왔다고

23) 이에 관해서는 Yevsei Liberman, "The Plan, Profits and Bonuses," Morris Bornstein & Daniel R. Fusfeld eds., *The Soviet Economy* (Homewood : Richard Irwin, 1970), pp.360-366 및 Alexei Kosygin, "On Improving Management of Industry," *loc. cit.*, pp.387-396.

24) K.K.Fung ed. *Social Needs versus Economic Efficiency in China : Sun Yefang's Critique of Socialist Economics* (Armonk, N.Y. : M.E. Shape, 1982) 참조.

25) Mark Blaug,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314.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共產圈 經濟의 모델이며, 그것을 대표하는 소비에트型 經濟는 “急速한 工業化와 經濟成長이라는 課業을 위하여 武裝된 全體主義”라고 定義되기도 한다²⁶⁾.

마르크스主義를 公式理念으로 하여 탄생된 소비에트 정권은 落後되어 있는 러시아의 工業化를 마르크스가 구분한 生産財 生産部門에 優先한 成長戰略을 採擇할 것인가 아니면 消費財 生産部門에 우선한 成長戰略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經濟를 마르크스의 論理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論難은 일단 工業 優先이나 아니면 農業 優先이나 하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불세비키 左派는 工業에 우선하는 不均衡成長을 주장한 반면, 極右派는 農業에 우선하는 不均衡成長을 주장하였고, 右派는 農工並進政策을 써야 한다는 均衡成長을 내세웠다.

불세비키 左派 理論家인 프레오브라젠스키(Evgeny Preobrazhensky)는 마르크스의 擴大再生産理論을 근거로 하여 소련의 급속한 工業化를 위해서 國家의 統制下에 資本財의 產出이 지속되어야 하고, 國家部門 밖의 資源을 國家部門으로 動員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하는 工業部門의 生産能力이 擴充되어야 한다는 “初期社會主義蓄積”(primitive socialist accumulation)論을 제기하였다²⁷⁾. 이것은 實質投資와 일치하는 實質貯蓄을 實現하기 위하여 民間部門의 資源을 國家部門으로 移轉시키는 過程으로 그 마지막 段階는 곧 社會化이다²⁸⁾.

프레오브라젠스키 理論은 스탈린主義 經濟成長戰略의 실질적 내용이 되었고, 그 成長戰略은 펠드만 모델(Fel'dman Model)로 定式化되기도 하였다²⁹⁾. 이 成長戰略은 그 후 蘇聯 뿐만 아니라 동유럽, 中國 등 모든 共產圈 國家들이 經濟開發에 하나의 典型的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2. 共產圈 經濟成長戰略의 問題點

스탈린, 프레오브라젠스키 및 펠드만의 成長模型으로서 代辯되는 急速한 工業化를 목적으로 했던 蘇聯, 동유럽, 中國 등의 전통적 經濟成長戰略의 초점은 資本蓄積을 위

26) Robert W. Campbell, *The Soviet-type Economies* (Boston : Houghton Mifflin, 1974), p.3.

27) E.A. Preobrazhensky, *The New Economics*, trans. by Brian Pearc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5), p.84.

28) James Millar, "A Note on Primitive Accumulation in Marx and Preobrazhensky," *Soviet Studies*, vol.1 no.3(1978), pp.387-93.

29) G.A. Fel'dman, "K teorii tempov narodnogo dokhoda," *Planovoe khozyaistvo*, no.11(1928), pp.146-70.

한 人的, 物的 資源의 動員과 投入物의 增加였다. 共產圈 國家들은 이러한 外延的 經濟 成長을 위한 政策과 制度를 마련하는 데에 渾身의 노력을 기울인 반면, 經濟開發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다른 많은 요소들은 資本蓄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共產圈 國家들의 外延的 成長戰略에서 외면되었던 대표적인 요소는 消費와 生産性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戰略 推進의 長期化가 共產圈 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였다. 오로지 工業化를 통한 資本스톡의 增加에만 의존한 成長戰略은 勞動供給의 隘路와 要素生産性 增加率의 下落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經濟成長率의 지속적 下向化를 촉진시켰다.

蘇聯에서는 資本스톡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勞動增加率이 점차 減少되는 데 겹쳐 1970년대 중반부터는 要素生産性이 감소함으로써 經濟成長率의 下落을 加速化시켰다. 東유럽 國家들은 蘇聯에 비해 급격한 生産性 增加率의 下落은 없었으나, 勞動力의 부족으로 역시 전체적인 實際 平均成長率이 計劃 成長率을 크게 밀돌고 있다. 다른 共產圈 國家에 비하여 中國에서의 勞動供給 增加率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그 역시 점차적인 下向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要素生産性도 1980~81년 사이에 그 증가율이 하락하여 工業生産 成長率을 급격히 낮추는 要因이 되었다.

과거 마르크스主義 原理에 충실히 따르는 經濟成長戰略을 驅使해 왔던 共產圈 國家들의 經濟는 長期的으로 그 成長이 限界에 부딪치고 있다. 그것은急速한 工業化를 통하여 先進 資本主義經濟를 따라잡음으로써 社會主義 優越性을 입증하고 先進 共產主義社會로 進入한다는 마르크스主義 理論의 挫折이 아닐 수 없다.

이제 共產圈 經濟는 이러한 成長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마르크스主義 成長戰略을 버리고 資本主義 成長原理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共產圈 經濟에 資本主義 成長原理를 도입한 후부터 그들의 經濟成長率이 上昇하는 局面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共產主義社會 建設의 理想과 現實의 乖離現象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VI. 共產圈의 貨幣金融 및 貿易의 脫마르크스의 轉換

1. 貨幣金融概念의 變化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에서 金과 銀의 價値가 絶對視되는 物神主義(fetishism)는 貨幣로부터 緣由되는 것이며, 商品의 貨幣價値와 實質價値가 일치하고 需要와 供給이

일치하며 生産과 消費가 일치하게 되면 貨幣는 廢止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⁰⁾. 마르크스의 이러한 貨幣觀에 따라 蘇聯에서는 볼세비키革命 直後에 貨幣를 物物交換 방식으로 바꾸는 조치가 취해져서 國有企業들 間에 貨幣에 의한 決濟方式이 廢止되고 貨金도 物品으로만 支拂되기도 하였다³¹⁾.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마르크스의 貨幣論을 따르는 共產圈 國家는 한 나라도 없다. 마르크스는 金本位制度를 排斥하고 社會主義下에서의 貨幣 消滅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共產圈의 모든 國家들의 貨幣는 金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通貨는 오히려 資本主義 經濟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共產圈 經濟에서 脫마르크스의 通貨機能이 확대되는 것은 中央集權의 價格決定의 失敗와 그에 따른 價格改革 및 市場機能의 擴大와도 깊은 聯關을 갖는다.

中央集權의 價格決定의 메커니즘에서는 市場經濟 메커니즘에서와 달리 通貨量의 變化가 價格의 變化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반대로 의도적으로 결정되는 國民所得 水準과 價格의 變化에 의해서 通貨量이 변하게 된다. 또한 中央集權의 價格은 수많은 여러 가지 財貨의 需要와 供給은 물론, 그들 生産費를 정확히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價格과 價值 사이에 隔差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價格의 變化에 의해서 결정되는 通貨量으로 인해 貨幣의 價值尺度機能은 없어지고 만다.

共產圈 經濟에서 貨幣의 役割이 중요하게 되고 市場에서 결정되는 價格의 範圍가 커짐에 따라서 財貨에 대한 價値의 概念도 바뀌고 있다. 價値의 客觀的 表現은 財貨生産에 필요한 社會的 勞動時間이라는 마르크스主義的 觀念에서 벗어나 이제는 通貨量에 의해서 社會生産物의 價値가 표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共產圈 經濟에서 通貨量이 거론되고, 經濟의 對外開放이 이루어지면서 마르크스가 物神主義 元兇으로 매도하였던 金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共產圈 經濟에 金이 復歸한 것에 대하여 시크는 “對外貿易이나 기타 海外金融去來가 존재하는 한, 특히 그러한 去來가 社會主義 國家와 資本主義 國家 間에 이루어질 때 社會主義下에 있어서도 貨幣를 金으로부터 완전히 떼어 놓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²⁾. 그는 國家間의 去來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유일한 國際通貨가 없고, 또한 共產圈 國家들 사이에는 실제적인 生産費가 같지 않으면서도 共通의 決濟手段이 없기 때문에, 같은 購買力을 나타내는 通貨量을 결정하는 手段으로서 金의 役割을 강조하였다³³⁾. 현실적으로 蘇聯을

30) 이에 관해서는 Roman Rosdolsky, *The Making of Marx's Capital* (London : Plato Press, 1977), pp.123-129 참조.

31) Wilczynski, *op. cit.*, p.141.

32) Ota Sik, *Plan and Market under Socialism* (White Plains, N.Y. : International Arts & Sciences Press, 1967), p.316.

33) *Ibid.*

비슷한 모든 共產圈 經濟에서 실제로 金에 의한 去來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對外支拂手段으로 金을 基準으로 하는 外換去來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國內通貨에 金平價가 인정되고 있다.

共產圈 經濟가 안고 있는 脆弱性を 克服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經濟改革은 金融의 役割에도 적지 않은 變化를 요구하고 있다. 즉, 經濟改革으로 인하여 企業의 自律性이 커짐에 따라서 金融制度의 多樣化가 필요하게 되고, 中央政府는 金融을 보다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共產圈 國家에서 金融制度의 多樣化는 과거 長短期 金融만으로 나누이던 제도에서 벗어나 機能的으로 專門化된 새로운 銀行들을 設立하고, 모든 銀行들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서 長期와 短期 金融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西方 先進國들로부터 새로운 專門技法을 導入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共產圈 國家들에서 企業利潤이 모두 政府에 上納되었기 때문에 企業에 대한 銀行의 役割이 커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經濟改革 이후에는 企業들이 일정한 범위의 利潤을 社內에 留保하고 自律적으로 銀行과 去來를 하게 됨에 따라 銀行의 重要性이 크게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共產圈 國家들이 과거에 財務部에만 報告되던 銀行業務를 國務會議 報告事項으로 格上시킨 것도 그만큼 銀行의 役割과 重要性이 커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2. 國際貿易利益의 再認識

共產圈에서의 전통적 反貿易理論의 論據는 마르크스의 不均等交換假說이다³⁴⁾. 이 假說을 바탕으로 록셈부르크(Rosa Luxemburg)와 레닌은 ‘資本主義的 帝國主義’理論을 展開하였다. 이러한 古典의 마르크스主義 理論을 承繼한 共產圈 經濟學者들은 貿易理論을 西方 先進國들의 後進國支配의 永久化와 社會主義圈에 불리한 差別的 商業政策의 合理化를 위해서 만들어진 “似而非科學的 反動學說”(pseudo-scientific reactionary doctrine)이라고 規定하였다³⁵⁾.

마르크스主義의 反貿易理論 주장은 共產圈 經濟에서 閉鎖經濟體制가 維持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說得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閉鎖經濟下에서는 資源不足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며, 그에 대한 가장 合理的 方法은 國際分業을 전제로 한 貿易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現實적으로 貿易이 필요하다는 認識은

34) Karl Marx, *Capital*, vol.1 (Moscow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p.560 참조.

35) *Voprosy ekonomiki*, 1959, no. 12, p. 120.

동유럽 뿐만 아니라 공산권 전체에 널리 퍼져 있으며, 共產圈에서도 對外貿易이 없는 閉鎖經濟는 이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共產圈에서 貿易理論의 開發은 自由圈에 비해서 거의 보잘 것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純粹理論分野에 속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 원인은 共產圈의 거의 모든 社會科學研究에서 그러하듯이, 貿易에 관한 연구도 社會 및 政治의 需要에 따라 이루어지고,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도 現實的인 問題에 얽매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된 貿易理論에 관한 연구는 거의 모두 경험을 토대로 한 歸納的 方法에 의해서 일반화된 것들로서 國際貿易의 社會的 基礎와 結果, 經濟計劃 與件 아래서의 對外貿易의 役割 및 그 效率性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對外貿易의 效率性 문제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共產圈 經濟 전체에서 制度的 脆弱性으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는 經濟的 및 技術的 非效率性 문제가 中心課題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共產圈 經濟學者들은 자유세계의 貿易理論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1960년대에 資本主義 貿易理論중 需要의 彈性性, 交易條件 및 比較生産費理論은 社會主義經濟에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³⁶⁾. 共產圈 經濟學者들이 自由世界の 貿易理論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로서 다음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東西貿易의 擴大로 共產圈에서도 自由圈 市場에 대한 理解가 필요하게 되었다. 共產圈의 貿易關係者들이 自由圈 市場의 運用原理와 法則을 충분히 理解하고 있으면 自由圈 經濟와의 貿易에서 그러한 知識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計劃과 政策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東西貿易에서 利益을 最大化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共產圈 經濟學者들은 그러한 知識과 情報을 貿易關係者들에게 제공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둘째, 共產圈 國家들이 經濟改革의 一環으로 추진하고 있는 資本主義型的 市場機能의 擴大와 그에 상응하는 貿易機構의 改編은 自由圈에서 개발된 國際貿易理論의 適用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과거에 共產圈에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이 “似而非科學的 謬論”으로 매도하던 自由貿易理論이 이제 共產圈 經濟에도 適用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6) Imre Vajda, *The Role of Foreign Trade in a Socialist Economy* (Budapest : Corvina Press, 1965), p.245.

VII. 結 論

지금까지 考察된 共產圈에서의 脫마르크스의 經濟概念의 變化는 公산권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이 아무리 高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實像이 없는 입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共產圈 經濟에 資本 및 土地에 대한 費用인 利子和 地代 概念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르크스 經濟理論의 出發點인 勞動價值說의 否定이며, 共產圈의 企業들이 利潤을 追求하는 生産活動에 종사한다는 것은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社會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利潤概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곧 마르크스의 剩餘價值說의 否定이다. 오늘날 共產圈 經濟改革에서 消費者主義가 강조되고 生産財보다 消費財의 開發이 더욱 優先되는 것 자체는 마르크스의 논리와 矛盾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動機가 마르크스가 豫見했던 社會主義 또는 共產主義社會의 풍요로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資本蓄積論에 근거한 共產圈 經濟의 生産財生産 優先政策의 失敗로 인한 經濟成長率의 下向趨勢와 消費生活 向上이 없는 상황에서 惹起되는 人民大衆의 不滿에 근거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난 마르크스經濟論理는 1920년대의 蘇聯을 始發로 하여 20세기 중반까지 共產圈에서 現實의인 實驗을 거치면서 점차 그 矛盾이 드러났고, 20세기 후반부터는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의 改革으로 이어지고 있다. 共產圈의 經濟改革과 더불어 마르크스學說에 대한 批判은 自由圈에서보다도 오히려 共產圈에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共產圈 經濟는 마르크시즘으로부터 완전히 離脫하여 現實主義의 經濟發展을 追求함으로써 마르크시즘은 그 이름만이 社會主義 歷史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共產圈 經濟의 脫마르크스의 理論體系의 變化와 더불어 實質의 體制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는 共產圈 國家들에 따라서 각기 樣態를 띄게 될 것이며, 변화의 속도도 나라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共產圈 經濟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體制的으로 상당히 變質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公산권 경제가 終局的으로 資本主義化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計劃經濟에다 資本主義 市場機能을 크게 受容한 市場社會主義 體制가 構築될 것으로 보인다.

經濟의 이데올로기와 體制的 變化는 共產圈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서 資本主義도 엄청난 變化를 겪어왔다. 資本主義 經濟의 沈滯는 共產圈 經濟에서와 마찬가지로 既存體制를 維持 發展시킨다는 保守主義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懷疑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經濟思想 및 體制的 變化를 加速시켜왔다.

既存의 마르크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에 대한 經濟思想의 變化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오는 各國 間의 經濟政策과 經濟發展의 相異性을 變質시키고 資本主義 市場經

濟體制과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的 混合의 收斂化를 促進시키는 한편,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 間의 經濟交流 幅을 넓히고 있다.

과거에 이데올로기적 動機와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세력 다툼에서 연유된 國際政治의 動機에 크게 影響을 받았던 國際經濟關係가 脫이데올로기화와 脫政治化하면서 各國의 經濟的 利益의 追求로 점차 제자리를 찾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東西貿易의 擴大와 더불어 自由圈의 先進工業國들로부터 共產圈에 輸出되는 資本과 技術이 增加하고, 共產圈 國家들은 그들 經濟의 새로운 開發模型을 自由圈 國家들에서 찾으려는 노력도 많아지게 되었다.

世界經濟의 體制混合의 收斂화와 共產圈 國家들의 自由圈 經濟에 대한 接近 움직임은 共產圈 經濟와 韓國經濟 關係의 緊密化를 推進시키고 있다. 사실, 共產圈 國家들의 開放化 趨勢와 더불어 韓國은 오래 전부터 間接的인 方法으로 中國, 蘇聯 및 동유럽 국가들과 商品을 去來하여 왔다. 그 뿐 아니라, 최근에 韓國의 企業人들은 이들 共產圈 國家들과의 直接交易과 合作投資를 하기에 까지 이르렀고, 北韓과의 交易도 可視化되고 있다. 西方 工業國들의 保護主義 貿易障壁에 부딪치고 進出市場의 多邊化가 요구되는 韓國經濟의 동유럽, 中國 및 蘇聯에의 接近은 經濟的 利益 뿐만 아니라, 對北韓關係의 改善이라는 面에서도 큰 意義를 지니고 있다.

參 考 文 獻

● 共產圈 文獻 :

1. 『共產黨原始資料選輯』. 第一, 二, 三集. 臺北: 國立政治大學東亞研究所 1969.
2.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香港: 經濟導報社. 1986.
3. 劉國光 編. 『國民經濟綜合平衡의 若干理論問題』.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4. 馬克思. 『資本論』. 第一, 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53.
5. 『馬克思恩格斯文選』. 第一, 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58.
6. 毛澤東. [讀〈政治經濟學教科書〉(社會主義部分)의 筆記]. 『毛澤東思想萬歲』. 1976.
7. 斯大林. 『馬克思主義與言語學問題』. 北京: 人民出版社. 1953.
8. 薛暮橋. 『我國經濟的幾個問題』. 北京: 人文出版社. 1980.
9. 孫治方. 『加強統計工作 改革統計體制』. 『經濟管理』. 1981年 第二期.
10. 楊堅白. 『國民經濟平衡和生產價格』. 『經濟研究』. 1963年 12期.
11. 梁文森 編. 『論綜合平衡: 國民經濟綜合理論問題討論會文集』.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1981.
12. 『人民日報』. 北京.

13. 中華人民共和國,『開國文獻』,香港:新民主出版社,1949年 11月
- 14.『紅旗』,北京.
15. Ambartsumov, Evgenii, "Analiz V.I.Leninym prichin krizisa 1921 g. i putei vykhoda iz nego," *Voprosy istorii*, no.4. 1984.
16. Anchishkin, A., *The Theory of Growth of a Socialist Economy*.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7.
17. Cave, Martin, Alastair McAuley & Judith Thornton eds, *New Trends in Soviet Economics*. Armonk, N.Y. : M.E.Sharpe, 1982.
18. *Ekonomicheskaja gazeta*. Moskva.
19. *Ekonomicheskaja zhizn*. Moskva.
20. *Ekonomika i organizatsiia promyshlennogo proizvodstva—EKO*.
21. Fedorenko, N.P., *Optimal Functioning System for a Socialist Economy*.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4.
22. Pung, K.K, ed, *Social Needs versus Economic Efficiency in China : Sun Yefang's Critique of Socialist Economics*. Armonk, N.Y : M.E.Sharpe, 1982.
23. Kornai, János, *Overcentralization in Economic Administration : A Critical Analysis Based on Experience in Hungarian Light Industr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24. Kosygin, Alexei, "On Improving Management of Industry." Morris Bornstein & Daniel R.Fusfeld eds, *The Soviet Economy : A Book of Readings*. 3rd ed. Homewood, Ill. : Richard D.Irwin, 1970.
25. Koval, N. and B. Miroshnichenko, *Fundamentals of Soviet Economic Planning*. Moscow :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72.
26. Lenin, Vladimir I., *On Socialist Economic Organisation : Articles and Speeches*. Moscow : Progress Publishers, 1971.
27. Lin, Wei & Arnold Chao eds, *China's Economic Reforms*.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28. Marx Karl, *Capital*. vols. I, II & III. Moscow :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1.
29. _____, *Value, Price and Profit*. Chicago : Charls H.Kerr, 1965.
30. _____, *Grundrisse*. New York : Vintage Books 1973.
31. _____ & Friedrich Engels, "The Communist Manifesto" Arthur P.Mandel ed. *Essential Works of Marxism*. New York : Bantam Books, 1965.

32. *Narodnoe khoziaistvo SSSR v 1975g.* Moskva : Statistika, 1976.
33. Nove, Alec.(English ed.) *The Use of Mathematics in Economics.* London : Oliver & Boyd, 1964.
34. *Planovoe khoziaistvo.*
35. *Pravda.* Moskva.
36. Preobrazhensky, E.A. *The New Economics.* London : Plato Press, 1977.
37. _____, *The Crisis of Soviet Industrialization : Selected Essays.* New York : M.E.S-harpe, 1979.
38. Luxemburg, Rosa, *The Accumulation of Capital.*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1964.
39. Sharpe, Myron E. ed. *Planning, Profit and Incentive in the USSR.* vols. 1 & 2. White Plains, N.Y. : International Arts & Sciences Press, 1966.
40. Sik, Ota. *Plan and Market under Socialism.* White Plains, N.Y. : Intenational Arts and Sciences Press, 1967.
41. _____, *The Third Way : Marxist—Leninist Theory and Modern Industial Society.* London : Wildwood House, 1976.
42. Smolinski, Leon ed. *L.V.Kantorovich : Essays in Optimal Planning.* White Plains, N.Y. : International Arts & Sciences Press, 1976.
43. Spulber, Nicolas ed. *Foundations of Soviet Stratege for Economic Growth—Selected Essays 1924—1930.*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64.
44. Szamuely, L., *First Models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s.* Budapest : Academiai Kiado, 1974.
45. Vaja, Imre, *The Role of Foreign Trade in a Socialist Economy.* Budapest : Corvina Press, 1965.
46. Volkonskii, V.A., *Model optimanogo plannirovaniya i vzaimnosoiazi ekonomicheskikh pokazatelei.* Moskva : Nauka, 1967.
47. *Voprosy ekonomiki.* Moskva.

• 西方文獻 :

1. Bergson, Abram, *The Real National Income of Soviet Russia.*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2. _____, *Productivity and the Social System : The USSR and the Wes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3. _____. "Gorbachev Calls for Intensive Growth." *Challenge*. vol.28. no.5. November – December 1985.
4.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5. Bornstein, Morris ed. *Plan and Market : Economic Reform in Eastern Europ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3.
6. _____.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3rd ed. Homewood, Ill. : Ric D. Irwin, 1974.
7. _____. ed. *The Soviet Economy : Continuity and Change*. Boulder, Co. : Westview Press, 1981.
8. Byrnes, Robert. ed. *After Brezhnev*.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9. Campbell, Robert W. *The Soviet—type Economies*,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1974.
10. CIA, Directorate of Intelligence.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 Washington, D.C. :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4.
11. _____.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USSR : Toward a Reconciliation of Marxist and Western Measures of National Income*. ER78–10500. October 1978.
12. _____. *China : A Statistical Compendium, A Reference Aid*. Washington, D.C. : U. 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13. _____. *Comparing Planned and Actual Growth of Industrial Output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ER80–10461. August 1980.
14. Cohen, Stephen. "The Friends and Foes of Change : Reformism and Conservatism in the Soviet Union." *Slavic Review*. vol.38 no.2. June 1979.
15. Dornar, Evsey D.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16.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ong Kong.
17. Field, Robert M. "Slow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in Chinese Industry, 1952–81." *China Quarterly*. no.96. December 1983.
18. Goldman, Mashall, "Gorbachev and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64 no. 1. Fall 1985.
19. Gregory, Paul R. & Robert R.Stuart. *Soviet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2nd ed. New York : Harper & Row, 1981.
20. Grossman, Gregory. "Scarce Capital and Soviet Doctr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67 no.3. August 1953. pp.327–330.

21. _____ed. *Essays in Socialism and Planning in Honor of Carl Landaue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70.
22. Hayek, F.A.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3.
23. Holesovsky, Vaclav. *Economic Systems : Analysus and Comparison*. Now York : McGraw – Hill. 1977.
24. Hunt, E.K.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A Critical Perspective*. Belmont, Cal. : Wadsworth Publising Co. 1979.
25. Joint Economic Committee, U.S. Congress. *Economic Preformance and Military Burden in the Soviet Union*. Washington, D.C. : U.S. Governmet Printing Office. 1970.
26. _____, *East European Economies Post Helsinki*.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27. _____, *Soviet Economy in Time Change*. vol.1.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9.
28. _____, *China Under the Four Modernizations*, Part I.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2.
29. Koopmans, T.C.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Econometrica*. vol.20 no.4. October 1951.
30. _____, “A Note about Kantorovich’s Paper ‘Mathematical Methods of Organizing and Planning Production’.” *Management Science*. vol.6 no.4. July 1960.
31. Lin Cyril Chiren, “Reinstatement of Economics in China Today.” *The China Quarterly*. vol.85. March 1981.
32. Millar, James R. ,“A Note on Primitive Accumulation in Marx and Preobrazhensky,” *Soviet Studies*. vol.30 no.3, July 1978.
33. Morishima, Michio, *Marx’s Economics*. London : Cambrige university Press. 1973.
34. NATO, Economic Directorate, *East—West Technological Cooperation*. Brussels. 1976.
35. Nell, Edward J. ,“Value and Capital in Marxian Economics.” Daniel Bell and Irving Kristol eds. *The Crisis in Economic Theory*. New York : Basic Books. 1981.
36. Nove, A. ,“The Problem of ‘Success Indicators’ in soviet Industry.” *Economica*. vol. 25 no.97. February 1958.
37. _____,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in Russia and China.” Szczepanik ed. *Symposium on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the Far East*. Hong Kong :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62.

38. _____, *An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London : Penguin, 1969.
39. Oh, Yong-Suk, "A Mathematical Approach to Marxian General Equilibrium," *Discussion Paper*. Department of Economics, Indiana University. 1983.
40. _____, *Modification of the Fel'dman Growth Model and Its Theoretical and Policy Reflection in the Chinese Economy, 1953-1980*.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1985.
41. _____, "The Chinese Reforms in Industrial Management," Sang-Woo Rhee ed. *China's Reform Politics*. Seoul : Sogang University Press, 1986.
42. Pyle, Thomas H. , "Reforming Chinese Management." *The China Business Review*. May - June 1981.
43. Rosdolsky, Roman, *The Making of Marx's 'Capital'*. London : Plato Press, 1977.
44. Sawyer, Malcolm C., *The Economics of Michal Kalecki*.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1985.
45. Shroeder, Gertrued, "The Soviet Economy." *Current History*. vol.84 no.504. October 1985.
46. Simmons, Ernest ed. *Continuity and Change in Russian and Soviet Though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47. Spulber, Nicolas. *The Soviet Economy*. New York : W.W.Norton & Co.1969.
48. Steedman, Ian. *Marx after Sraffa*. New York : New Left Books. 1977.
49. *The World Book Encyclopedia*. 1986.
50. U.N. *Basic Principles of Balances of the National Economy*. New York.1971.
51. _____, *Demographic Yearbook*. New York.1983.
52. Weitzman, M. , "Shiftable Versus Non - Shiftable Capital : A Synthesis" *Econometrica*. vol.39 no.3. May 1971.
53.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ions, *Centrally Plannded Economies : Current Analysis*. 27 March 1985.
54. Wilczynski, J.,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East-West Trade*.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1969.
55. _____,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0.1983.
56. _____, *Socialist Economic Development and Reforms*. London : Macmillan Publishers. 1972.
57. Zafanolli, Wojtek, "A Brief Outline of China's Second Economy." *Asian Survey*. vo.25 no.7. July 1985.